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안 수 빈¹⁾

이 강 이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4곳에 재학 중인 611명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은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그리고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았다. 둘째,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정도가 낮을수록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완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애착과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조절효과를 갖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SNS 또래괴롭힘,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부모애착, 또래동조성

* 이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3S1A5B8A02068055).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E-mail : kangyil@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성장한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맺는 주요 공간이 교실이었던 것에 반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SNS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를 이끄는 매체로 주목 받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 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SNS는 익명에 기초한 이전의 인터넷 소통과 달리 실명에 기초하여 학교, 이메일, 관심사 등의 개인 프로필 정보를 공개한다. 이처럼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친구관계 맺기는 기존의 미디어와 다른 SNS의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Boyd & Ellison, 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88.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사용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 사용자들은 오프라인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사용한다(Lenhart et al., 2011; Reich, Subrahmanyam, & Espinoza, 2012; Valkenburg & Peter, 2007).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또래와 SNS상에서 친구관계를 맺고,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도 연락을 지속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의 활발한 또래상호작용을 한다. Lenhart 등(2011)은 SNS가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표현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을 확장시켜주어 청소년의 또래관계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SNS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래간의 욕설, 놀림, 소문 퍼뜨리기 등의 사이버괴롭힘(cyberbullying) 현상은 SNS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의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사이버괴롭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와 함께 학교폭력 유형 중 폭행이나 감금, 금품갈취 등의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신체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학교폭력이 이제는 언어적이고 관계적인 괴롭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SNS 또래괴롭힘은 이러한 언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이 교실을 넘어 SNS라는 사이버공간으로 이어져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또래괴롭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SNS는 괴롭힘 상황에서도 비교적 죄책감을 덜 느끼는 비 면대면 온라인 매체이다. 그러나 다른 온라인 매체와는 달리 친구 맺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주요 소통 대상은 익명의 대상이 아닌 이미 학교에서 알고 있는 또래이다.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는 글

1) 사이버공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5.7%에서 2013년 1차 7.2%, 2013년 2차 7.9%로 증가하였다.

게시, 댓글 작성, 그룹채팅 등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매체 특성으로 인해 SNS는 관계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언어적 또래괴롭힘에도 취약한 매체로 볼 수 있다. SNS 그룹 채팅 방에 친구를 초대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욕설을 하거나 소외시키는 ‘카따(카카오톡 왕따)’나 의도적으로 찍은 친구의 혐오스러운 사진 또는 친구에 관한 거짓된 소문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퍼뜨리고 이에 공격적인 댓글을 다는 등의 사례는 SNS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언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SNS 또래괴롭힘은 기존의 사이버괴롭힘과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나아가 괴롭힘의 목격자까지 익명의 대상이 아닌 이미 학교에서 알고 있는 친구라는 점에서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NS상에 게시한 글이나 메시지, 사진 등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다수가 목격할 수 있으며, 전달하기와 추천하기 같은 SNS의 리트윗 기능을 통해 괴롭힘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특징을 가진다(한국정보진흥원, 2011a). SNS가 가진 매체의 특수성과 이로 인해 기존 사이버괴롭힘과 다르게 나타나는 SNS 또래괴롭힘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이수경, 오인수, 2012; Kowalski & Limber, 2007; Willard, 2006)은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괴롭힘을 이메일이나 블로그, 채팅과 같은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괴롭힘과 구분하지 않고 연구해 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 중 최근 청소년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오프라인 영향력이 큰 SNS에서 이루어지는 또

래괴롭힘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기 또래괴롭힘의 초기 연구(Bjorkqvist, Ekman, & Lagerspetz, 1982; Byrne, 1994; Craig, 1998; Olweus, 1995)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또래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가해 및 피해경험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이성식, 전신현, 2011; 이해경, 김혜원, 2000; 조유진, 2008; Natvig, Albrektsen, & Qvarnstrom, 2001). 뿐만 아니라 가해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던 요인이 동시에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Jensen & Brownfield, 1986; Sampson & Lauritsen, 1990; Schreck, Wright & Miller, 2002) 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SNS 또래괴롭힘과 관련해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 낮은 자아 존중감, 우울감 등이 사이버괴롭힘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Dempsey, Sulkowski, Nichols, & Storch, 2009; Kowalski & Limber,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의 사이버괴롭힘에 관한 국내 연구(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이인태, 2012)는 주로 실태 파악에 제한되어 있어 사이버괴롭힘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개입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함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또래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가 SNS 또래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되어 가는 시기이지만, 부모-자녀관계의 질인 애착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로 작용하여 또래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2; Eliot & Cornell, 2009). 이러한 내적작동모델 관점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부모애착을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도현심, 2000; Eliot & Conell, 2009; Walden & Beran, 2010).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피해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온라인 공격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Ybarra & Mitchell, 2004).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오프라인 또래괴롭힘을 넘어 온라인 공격성에도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애착과 온라인 괴롭힘 가해 경험 및 피해경험의 관계를 모두 살펴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이 큰 매체인 SNS상에서 발생하는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가 SNS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부모애착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

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임과 동시에,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래집단 내에서 얻는 지원과 이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이다(La Greca & Harrison, 2005). 청소년이 또래집단에 소속되려 하며 또래에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위와 같은 성향을 또래동조성이라 한다. SNS 사용 실태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또래동조성향이 SNS 사용과 관련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의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변 또래 친구들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내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SNS 계정 보유 비율이 약 3배가량 높았으며 SNS 친구 수는 3배 이상, SNS 사용 빈도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사용과 또래 영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또래동조성과 SNS 사용의 부정적 현상인 또래괴롭힘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청소년의 일탈행동, 중독 현상, 집단 괴롭힘 등과 같은 반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의 또래동조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Berndt, 1979; Brown, Classen, & Eicher, 1986) 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편, 사이버괴롭힘에 관한 국외 연구들(Accordino & Accordino, 2011; Casas, Rey, & Ortega-Ruiz, 2013; Smith et al., 2008, Ybarra &

Mitchell, 2004)은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괴롭힘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Ybarra와 Mitchell(2004)은 청소년이 보고한 인터넷 사용빈도 및 사용시간이 사이버괴롭힘 가해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Casas 등(2013)은 인터넷 중독 정도가 사이버괴롭힘 가해행동의 주요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괴롭힘 경험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지만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사이버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주는 다른 발달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정도에 따라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의 주요 발달적 특징으로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을 설정하고,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동

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SNS를 사용하고 있는 611명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후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또래괴롭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며(Pellegrini & Long, 2002),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경험 역시 초등학교나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 2013; Williams & Guerra, 2007). 이와 함께 최근 국내 청소년의 SNS 사용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이 연

표 1. 연구대상의 구성 N(%)

학년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학년	91	94	185(30.3)
2학년	100	105	205(33.6)
3학년	100	121	221(36.2)
소계	291(47.6)	320(52.4)	611(100.0)

표 2. SNS 종류별 사용자 수

구분	N	%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594	97.7
페이스북	266	43.8
트위터	203	33.4
싸이월드	178	29.3
마이스페이스	41	6.7

구에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의 SNS는 관련 선행연구 결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에 한정한다.

2. 연구도구

SNS 또래괴롭힘

SNS 또래괴롭힘 척도는 Willard(2006) 사이버괴롭힘 하위 유형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Willard(2006)의 사이버괴롭힘 하위 유형은 괴롭힘(harassment), 플레밍(flamming), 명예훼손(denigration), 위장(impersonation), 폭로(outing), 소외(exclusion),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으로 구성된다. 이는 채팅, 이메일, 블로그 등 온라인 전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동을 유형화 한 것이다. 특히 하위 유형 중 괴롭힘(harassment)은 특정 대상에게 불쾌한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여, SNS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괴롭힘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제

표 3.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질문지의 구성 예시

유형	세부 내용	가해경험 질문 예시	문항 수
플레밍 (flaming)	언어적 공격 형태인 욕설, 비방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나는 SNS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친구를 비난한 적이 있다.	1
명예훼손 (denigration)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나는 SNS에서 친구를 놀리거나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진 또는 동영상 올린 적이 있다.	3
위장 (impersonation)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를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곤란을 겪게 하는 행위	나는 SNS에서 친구인 척 접속하여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1
폭로 (outing)	예민하거나 숨기고 싶은 개인 정보를 폭로하는 행위	나는 SNS에서 친구가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에 관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	2
소외 (exclusion)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배제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	나는 SNS에서 고의로 친구를 소외시킨 적이 있다.	2
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	상대가 원하지 않으며 위협감을 느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나는 SNS에서 친구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적이 있다.	1

외한 6가지 유형을 근거로 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이버괴롭힘 행동 중 SNS의 주요 소통 과정(예; 글, 사진 및 동영상 게시, 댓글 작성, 리트윗, 그룹채팅, 메시지 전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SNS 또래괴롭힘 척도는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로서의 경험을 묻는 가해경험 10문항과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묻는 피해경험 10문항으로 구성된다. 괴롭힘의 하위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SNS 또래괴롭힘 가해 경험 측정 질문 예시는 표 3과 같다. 피해경험 측정 질문의 경우 주어가 친구들, 목적어가 나로 바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예; 가해경험 질문: “나는 SNS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친구를 비난한 적이 있다.”, 피해경험 질문: “친구들은 SNS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나를 비난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한 문항은 아동학 교수 3인과 아동학 박사과정 연구원 2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점부터 ‘매우 자주 그런 적이 있다’ 5점까지로 점수화 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각 10점에서 50점이며, 총점을 문항수인 10으로 나누어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SNS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5,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한국정보화진흥원(2011b)이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S-척도)의 하위유형 중 일상생활장애에 해당하는 5문항을 발췌하여 청소년이 SNS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예; S-척도 질문: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질문: “SNS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화 한다. 총점의 범위는 5점에서 20점이며, 이를 문항수로 나누어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SNS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부모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번안하여 이중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IPPA-R 문항 중 부모애착 문항은 총 25문항이며, 신뢰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 하며, 각 문항에서 평가된 점수의 총점

으로 애착을 평가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총점을 문항수인 25로 나누어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또래동조성

Berndt(1979)의 척도를 기반으로 오경희(1989)가 제작한 또래동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동조성 척도는 총 16문항이며, 독립적 또래동조성 8문항, 반사회적 또래동조성 8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친구의 행동에 동조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 한다.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이며, 총점을 문항수인 16으로 나누어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동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동조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신뢰계수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해결을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모형 1은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을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93.59, p < .001$).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또래동조성($\beta = .40, p < .001$), 부모애착($\beta = -.22, p < .001$) 순으로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또래에게 동조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변수를 추가한 모형 2는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84.86, p < .001$).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beta = .26, p < .001$)는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표 4.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부모애착 (A)	-.19	-.22***	-.14	-.16***	-.14	-.16***
	또래동조성 (B)	.41	.40***	.34	.34***	.36	.35***
조절 변수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C)			.21	.26***	.21	.26***
상호 작용 변수	A * C					.00	.01
	B * C					.01	.10**
F		93.59***		84.86***		52.93***	
R^2 (Adj- R^2)		.24(.23)		.30(.29)		.30(.30)	
ΔR^2				.06***		.01**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NS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장애에서 장애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3은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52.93, p < .001$).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 2에 비해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3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또래동조성에서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애착에서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또래동조성 점수와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점수를 평균점을 중심으로 각각 상하집단으로 이분한 후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



그림 1. 청소년의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대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

장애 수준이 높은 경우에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우선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로 설정한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을 투입하여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1은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약 14%의 설명력을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50.98, p < .001$).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부모애착($\beta = -.28, p <$

.001), 또래동조성($\beta = .22, p < .001$) 순으로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부정적일수록, 또래에게 동조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또래동조성이 부모애착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비교되는 결과이다.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변수를 추가한 모형 2는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9.30, p < .001$). 또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15, p < .001$), SNS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클수록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변수가

표 5.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부모애착 (A)	-.27	-.28***	-.24	-.24***	-.24	-.25***
	또래동조성 (B)	.25	.22***	.21	.18***	.23	.20***
조절 변수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C)			.13	.15***	.13	.15***
상호 작용 변수	A * C					.00	.02
	B * C					.01	.13***
F		50.98***		39.30***		26.45***	
R^2 (Adj- R^2)		.14(.14)		.16(.16)		.18(.17)	
ΔR^2				.02***		.02***	

*** $p < .001$.

부모애착 및 또래동조성과 상호작용하여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26.45, p < .001$). 또한 전체 투입변수의 설명력은 18%로 모형 2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또래동조성에서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애착에서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은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주효과만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또래동조성이 증가할수록 SNS상에서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청소년의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SNS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게 된 괴롭힘 유형인 SNS 또래괴롭힘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SNS가 지닌 매체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는 SNS 또래괴롭힘을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괴롭힘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이버괴롭힘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실태 파악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의 주요 발달 특성인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은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부모와의 애착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SNS상에서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괴롭힘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Eliot & Cornell, 2009; Walden & Beran, 2010)과 일치하여,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오프라인 또래괴롭힘 뿐만 아니라 SNS 또래괴롭힘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또래동조성이 높은 청소년이 집단괴롭힘 등의 학교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김용태, 박한샘, 1997; 하은혜, 조유진, 2007). 즉

부모애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발달 특성인 또래동조성 역시 오프라인 또래괴롭힘 뿐만 아니라 SNS 또래괴롭힘을 야기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서는 또래동조성이 부모애착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보인 반면, SNS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부모애착이 또래동조성보다 더 높은 상대적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NS 또래괴롭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는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즉 또래동조성은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나, 또래동조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SNS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정도에 따라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또래동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며(Camarena, Sarigiani, & Petersen, 1990; Costanzo & Shaw, 1966), 또래동조성은 과도기적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Hartup, 1983). 이처럼 청소년기에 높게 나타나는 또래동조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다 효과적인 SNS 또래괴롭힘 예방 및 개입을 위해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부모애착과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는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SNS상에서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 정도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SNS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부모애착이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을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또래상호작용에 부모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 대다수는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적은 일반청소년이었다. 이로 인해 SNS 또래괴롭힘 정도가 높고 위험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경향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SNS는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종류별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른 SNS는 모두 개인이 정보를 공개하는 프로필을 통해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세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SNS의 종류에 따라 SNS 또래괴롭힘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SNS의 종류별로 나누어 또래괴롭힘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또래괴롭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사이버괴롭힘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사이버 매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같은 유형으로 다루었던 것에서 나아가 SNS가 가진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기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또래에게 동조하려는 성향이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기존의 국내 사이버괴롭힘 연구가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살펴본데 반해, 이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SNS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SNS 또래괴롭힘은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며, 언어적이고 관계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차리고 직접 관여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애착이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부모 자녀관계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비 면대면 상황인 SNS상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애착증진 개입 전략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인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을 야기한다는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또래동조성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교우관계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소속된 또래 집단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는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SNS는 청소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도와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방해받을 정도로 SNS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SNS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에 있어, 적절한 SNS 사용을 함께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중학교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교육부.
-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에

- 대한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도현심 (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오경희 (1989).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사이버불링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령군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3, 120-145.
- 이성식, 전신현 (2011).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피해자학연구*, 19(1), 207-227.
- 이수경, 오인수 (2012). 사이버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 이인태 (2012). 초등학교의 사이버불링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32, 91-118.
- 이해경, 김혜원 (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 조유진 (2008).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9(5), 215-226.
- 하은혜, 조유진 (2007).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요인 - 남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4(4), 49-64.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a).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및 대응방향.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b). 스마트폰중독 진단 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013 한국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ccordino, D. B., & Accordino, M. P.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40(1), 14-30.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rndt, T.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jo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 (1982). Bullies and victims: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307-313.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yd, D.,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01-230.

- Brown, B. B., Clas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Byrne, B. J. (1994). Bullies and victims in a school setting with reference to some Dublin schools. *The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5, 574-586.
- Camarena, P. M., Sarigiani, P. A., & Petersen, A. C. (1990). Gender-specific pathways to intimacy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1), 19-32.
- Casas, J. A., Rey, R. D., & Ortega-Ruiz, R. (2013). Bullying and cyberbullying: Convergent and divergent predictor variabl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580-587.
- Costanzo, P. R., & Shaw, M. E. (1966). Conformity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4), 967-975.
-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123-130.
- Dempsey, A. G., Sulkowski, M. L., Nichols, R., & Storch, E. A. (2009). Differences between peer victimization in cyber and physical settings and associated psychosocia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6(10), 962-972.
- Eliot, M., & Cornell, D. G. (2009). Bullying in middle school as function of insecure attachment and aggressive attitud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2), 201-214.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03-196). New York: Wiley.
- Jensen, G. F., & Brownfield, D. (1986). Gender,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Violence and Victims*, 1(2), 85-99.
-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22-S30.
- Kowalski, R. M., & Limber, S. P. (2011).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 bullying*. Unpublished manuscript, Clemson University.
-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49-61.
- Lenhart, A., Madden, M., Smith, A., Purcell, K., Zickuhr, K., & Rainie, L. (2011). *Teens, kindness and cruelty on social network sites*. Washington: 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61-575.
- Olweus, D. (1995). Bullying or peer abuse at

-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196-200.
- Pellegrini, A. D., & Long, J. D. (2002).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dominance and victimiz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hrough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59-280.
- Reich, S. M., Subrahmanyam, K., & Espinoza, G. (2012). Friending, IMing, and hanging out face-to-face: Overlap in adolescents' online and offline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48(2), 356-368.
- Sampson, R. J., & Lauritsen, J. L. (1990). Deviant lifestyles,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110-139.
- Schreck, C. J., Wright, R. A., & Miller, J. M. (2002). A study of the individual and situational antecedents of violent victimization. *Justice Quart*, 19, 159-180.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and their closeness to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267-277.
- Walden, L. M., & Beran, T. N. (2010). Attachment quality and bullying behavior in school-aged youth.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1), 5-18.
- Willard, N. (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cruelty, threats, and distress*. Eugene, OR: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 Williams, K. R., & Guerra, N. G.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14-21.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Youth engaging in online harassment: Association with caregiver-child relationships, internet us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olescence*, 27(3), 319-336.

1 차원고접수 : 2014.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8.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9. 04.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Conformity
on Adolescents' SNS Peer-bully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aused by SNS

Ahn, Subin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aused by S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peer conformity and SNS peer bullying. The participants comprised 611 students (7th, 8th and 9th grade) drawn from four middle schools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19.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level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conform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NS peer-bullying. Second,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aused by SN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conformity and SNS peer-bullying. High levels of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aused by SNS tended to increase the effect of peer conformity on SNS peer-bullying. However, in contrast, low levels of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aused by SNS diminished the effect of peer conformity on SNS peer-bully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SNS peer-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Keywords: SNS peer-bullying,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aused by SNS, parental attachment, peer conformity